

국제통신망의 발전동향과 경쟁

김 영 철
(한국데이터통신(주) 국제전화추진본부장)

■ 차 례 ■

- ①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기통신의 역할
 - 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와 전기통신
 - 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전기통신
 - 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전기통신
- ② 세계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

- 가. 설비의 글로벌화
- 나. 서비스/마케팅의 글로벌화
- 다. 투자의 글로벌화
- ③ 경쟁도입의 의의

〈요 약〉

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은 90년 7월 체신부의 경쟁도입정책환경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개시로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서비스화 추세, 전기통신분야에서의 글로벌화등의 추세로 볼때 한국의 기본통신경쟁도입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이의 성공여부는 전기통신개방이라는 세계적 조류하에 한국전기통신산업의 향배 뿐만아니라, 국가산업전체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①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기통신의 역할

'80년대이후 세계경제는 그 이전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의 서비스화, 글로벌화등으로 흔히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흐름의 변화는 전기통신산업의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와 전기통신
금융, 무역, 운송 및 정보산업을 구축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은 소위 후기산업화 산업시대에 있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50%수준을 넘은지는 오래다. 서비스산업의 계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에 있어 주요한 국가경제적 과제이다. 8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분야의 세계적 개방추세

는 이들 선진그룹의 적극적 해외진출노력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가 서비스산업 개방의 전세계적 제도에 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의 경제는 향후 상당기간동안 '서비스화'로 특정지워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서비스화는 전기통신산업에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상 정보통신서비스에 의 의존도가 큰 바, 향후 정보통신산업은 질적, 양적인 성장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세계적 경쟁화는 필연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세계적 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세계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은 많은 선진국가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다. 전기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진제국들의 정책은 국가경제의 효율성제고라는 1차적 목적 이외에 자국을 세계 서비스산업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기통신산업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84년 영국전기통신법은 그 총칙 3조에서 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의 임무로서 '영국외에 사업소가 있는 통신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국내에 사업소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영국을 세계 서비스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통신정책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임을 법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서비스기업, 대표적으로 금융서비스기업들은 그들의 해외거점의 선정에 있어 통신서비스환경, 특히 국제통신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수준, 자유화의 수준등을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의 하나로 고려한다.

-1997년으로 예정된 홍콩의 반환으로 아시아의 서비스 중심지전을 노린 주변 국가들-예컨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등-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바, 이들 정부의

일차적 조치들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자유화 및 요금인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추세는 종래 통신정책의 여러목표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통신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명제를 제일의적 정책목표로 올려 놓았을 뿐아니라, 국내독점에 안주하고 있던 통신서비스산업을 국제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전기통신

다국적기업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하간 지나 수십년간 다국적기업의 숫적증가 및 활동영역의 확대는 세계의 경제흐름을 특징짓는 주요현상중의 하나이다. 자본 및 기술이전의 규제완화 또는 자유화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인건비의 절감, 상품 및 마케팅의 현지화, 운송비용의 절감등 경영전략적 동기에 의거하든가, 혹은 자국에 환경규제 기피 등의 목적으로 후진국에 사업조직을 이전하고 있는 반면, 후진국들은 경제개발을 앞세워 이들 선진자본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리하여 세계의 경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국가단위 경제간의 호환성이 점차 증대하여 단일 경제적 특성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전기통신의 글로벌화와 밀접한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은 오로지 국제통신의 질적, 양적, 능력의 제고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였다. 한편으로, 경제의 글로벌화는 향후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화는 종전 국내통신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국제통신으로 대체하는 양상을 띄게 된다. 이들 기업들이 다국적화내지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국내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여러가지 잇점들을 국제통신에서 요구하게 되는 현상은 수요자인 기업의 시각에서 볼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one-stop-

-shopping 등 국제통신영역에서는 아직 초기도입 단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개념들은 국내통신서비스의 개념이 국제통신의 수요양상에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다.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전기통신

1980년대에 들어 세계는 사상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급속한 자유화의 진행을 경험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말까지 구가되었던 미국의 정치, 경제양면의 절대적 위위(Pax Americana)는 70년대이후 일본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EC의 경제적 부흥으로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80년중반부터 소련에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는 동구의 몰락과 함께,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소간의 균형(Status Quo)을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2년으로 예정된 EC의 통합으로 전세계는 다가오는 시대의 경제질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현상은 군사안보, 정치안보라는 국가경영의 중차대한 명제에 더하여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볼때 전기통신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전기통신망 특히 국제통신망은 각 국민경제의 해외활동 및 거래에 따르는 중요정보를 실어나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 나아가 적절한 컨트롤을 유지하는 것은 현대국가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으로 일국가의 국제통신망의 일부가 제3의 국가, 심지어는 잠재적 경쟁국가의 컨트롤하에 있는 상황은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거의 참을 수 없는 요소를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전기통신산업 크게는 정보통신산업이 국가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이 장차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제 해저케이블망과 위성네트워크를 둘러싼

선진제국들의 기민한 움직임들은 1차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적 동기에 기인하지만, 당해 국가정부들의 국가경영적 시각 또한 다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세계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

앞에서 지적한 국제전기통신환경의 변화는 세계적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행동양식등에 이미 상당부문 반영되어 있다. 이들이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히 반응할 수 있게된 것은 오로지 그들이 국내적으로 이미 경쟁의 상황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의 우수 국제통신사업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전략하에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제적 경쟁에 선행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글로벌전략”으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설비의 글로벌화, 마케팅의 글로벌화, 투자의 글로벌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설비의 글로벌화

광 전송기술의 지속적 발전은 국제해저광케이블을 국제전송의 주된 미디어로 서서히 부상시키고 있다. 종래의 주된 전송수단이었던 위성통신과 새로히 부상하는 해저케이블은 그 속성에서부터 중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바, 국제통신사업자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는 상당부문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통신은 그 기술적 속성상 위성체를 중심으로 물리적 대칭성을 가지며, 이 대칭성은 2국간의 국제통신에 있어 각국 사업자간의 책임 권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위성통신은 위성체만이 오로지 중계자가 되는 것으로, 이 위성체의 중립성은 INTELSAT이라는 중립적 국제기구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광케이블은 그 물리적 특성만으로는 대칭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케이블의 2차원적 특성으로 인하여 2

국간의 연결에 있어 제3국을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었다. 광케이블의 이러한 물리적, 기술적 특성이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 주요사업자들의 글로벌전략등과 어우러져 소위 '글로벌네트워크'라든가 'Hub'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탄생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의 AT&T, 영국의 BT, 일본의 KDD간의 A-B-K라인은 공개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세계의 국제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서로간의 이해를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각각을 자신의 지역내에서 통신의 중심으로 만들고자하는 집단적 공동이해하에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본의 큐슈, 미국의 시카고,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해저케이블 망구축을 이미 상당부분 구축하였으며 또 새로운 계획을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영국을 거점으로 한 다국적 통신사업자인 C&W의 'Global Digital Highway', 미국내의 최장 광케이블 보유사업자인 US Sprint의 'Fiber World'등이 국제 경쟁상황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제네트워크의 전략적 중요성에 눈을 뜬 몇몇 주요국가들이 자신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통신의 소중심권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광케이블 구축에 임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아시아의 대만, 호주, 미주의 캐나다등이 이들이다.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점은 국제광케이블망의 출현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주체들은 자국내에서 경쟁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나. 서비스/마케팅의 글로벌화

설비의 글로벌화와 함께 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의 글로벌화, 나아가 서비스의 글로벌화이다. 이 부문의 글로벌화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단계 : One-Stop-Shopping
- 2단계 : VPN(가상사설망 네트워크)
- 3단계 : Global Centrex

1단계의 One-Stop-Shopping은 여러국가의 사업자들이 다국적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구상한 요금청구 및 서비스제공인바, 다국적기업은 그외 국제 네트워크구성을 위해 본부가 소재한 국가의 사업자에 회선을 신청하면, 그 사업자가 해외의 파트너사업자와 협의, 일괄적으로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청구한다. VPN 역시 다국적기업의 국제통신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국제전화교환 서비스 이용을 마치 사설망을 쓰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편리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해 주는 서비스이다. Global Centrex는 이보다 한 걸음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연결을 마치 사설 PBX를 이용하는 것처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제통신사업자간의 긴밀한 업무적 협조와 시스템적 호환성이 요구되는 바, 특히 미국의 통신사업자들간에 각국의 주요사업자들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 투자의 글로벌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산업의 자유화 및 기본시장의 자유화 추세는 자국내의 각종 투자규제에 묶여있는 선진제국의 기본통신사업자들에게 있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다변화에 있어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미국사업자들의 활약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영국의 BT는 미국 양대부가가치사업자중의 하나인 Tymnet를 통째로 매입,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개시한 이래 순수부가가치통신부문 및 이동통신 서비스분야에 지속적인 해외거점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IDC와의 자본참여, 미국현지법인의 설립을 계기로 구영국식민지 지역으로 부터 활동영역을 확대한 C&W는 홍콩, 영국에서의 이동통신경험과 해외지역에서의

축적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1984년 AT&T의 분할로 새로히 탄생된 미국의 7개 벨운영사업자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통신산업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내의 엄격한 사업규제에 묶여있는 이들 사업자들에 있어 지역내 독점으로 축적한 자본력의 유일한 돌파구는 해외시장이다. 이들은 특히 이동통신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활발한 통신자본의 해외진출현상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선진제국들의 자국내 보편적서비스의 완성으로 신서비스의 개발외에는 국내투자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음으로서 자연히 해외투자의 여력이 증대 되었다.

둘째,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지역의 파트너쉽획득에서 적극적 대안으로 아예 자회사설립 또는 관련사업체의 매입을 선택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정보화의 급격한 확산추세는 해외지역에서의 전기통신서비스사업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World Telephone Company'로 설정하고 국경이 없는 통신의 구현을 위한 기초적 작업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경쟁도입의 의의

이상 살펴본 국제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양상들은 기술의 발전, 전기통신자유화의 세계적 파급, 통신사업자들의 생존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오늘날 국제통신서비스는 그 궁극적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한 방향으로의 진화 과정에 있어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90년 7월 한국정부는 국제통신서비스에 경쟁도입 원칙을 천명하는데 이어 10월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에 국제전화사업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본통신

경쟁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경쟁도입에 있어 정부가 성취코자하는 제일의적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의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관련된 많은 그룹들간의 이해관계가 장애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제국의 경쟁도입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1980년대초반 영국정부가 C&W계열의 Mercury에 기본통신사업면허를 발급했을 때, 독점사업자였던 BT의 노조는 상호접속을 거부하였다. BT경영진의 묵인하에, 생존권보호의 명분으로 감행되었던 이 움직임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함으로써 일단락을 보게 되었으나, 이러한 원만한 사태해결의 배경에는 당시 대처 보수정권의 산업합리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영국의 장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후 진행된 BT의 변신은 민영화라는 외형적 위상변화에 그치지 않고, BT경영진에 의한 글로벌화등 적극적 사업전략에 힘입어 오늘날의 BT에 이르게 되었다. 거대한 고용규모(당시 BT는 30만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관료적 기업운영, 서비스 부재 등으로 알려졌던 BT는 오늘날 동일한 인원으로 80년초반에 비해 2배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으로 축적된 발전된 기술, 자본력으로 적극적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BT의 성공은 프랑스의 독점사업자인 France Telecom, 독일의 Bundespost의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 성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BT에서 일어난 기업철학의 변화, 행동양식의 변화, 이에 따른 기업의 총체적 역량의 강화는 오로지 10년전 영국정부가 도입한 경쟁정책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성공은 다시 경쟁도입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영국내 관련 이해 관계자들간의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아마도 경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1984년 영국 전기통신법은 거의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법은 총칙 제3조에서 주무장관의 임무로 8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충분히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공급되는 전기통신설비 및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 그리고 요금에 관하여 영국내의 소비자, 구매자 및 다른 사용자(특히 노인과 무능력자를 포함하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

2. 영국내에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상행위에 종사하는 자들간의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 촉진시킬 것.

3. 전기통신과 관련된 상행위 종사자들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조장시킬 것.

4. 전기통신과 관련된 상행위 종사자에 의한 신기술의 이용, 발전 및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것.

5. 영국외에 사업소가 있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국내에 사업소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것.

6. 영국내에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국제중계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킬 것.

7. 영국내에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영국외에서도 동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

8. 영국내 전기통신설비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영국의 내,외 모두에 있어서 동설비의 공급에 관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도 금년 12월부터 DACOM의 국제전화서비스 개시로 본격적인 기본통신경쟁의 장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출발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현상, 이것은 한국의 기본통신산업전체가 향후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한국의 정보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발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경쟁이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소중한 목표들은 경쟁 도입 그 자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쟁체제의 정착으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체제의 성공적 정착은 오로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된 인식, 즉 경쟁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발전의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새로운 체제, 이것은 소속된 이들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자세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전기통신산업의 글로벌화라는 세계적 조류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통신산업 종사자 모두가 같이한다면, 우리 통신가족의 미래는 밝다.

저자약력

- 1986년 8월 : 한국데이터통신(주) 입사 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실장 역임
- 현재 : 국제전화추진본부장